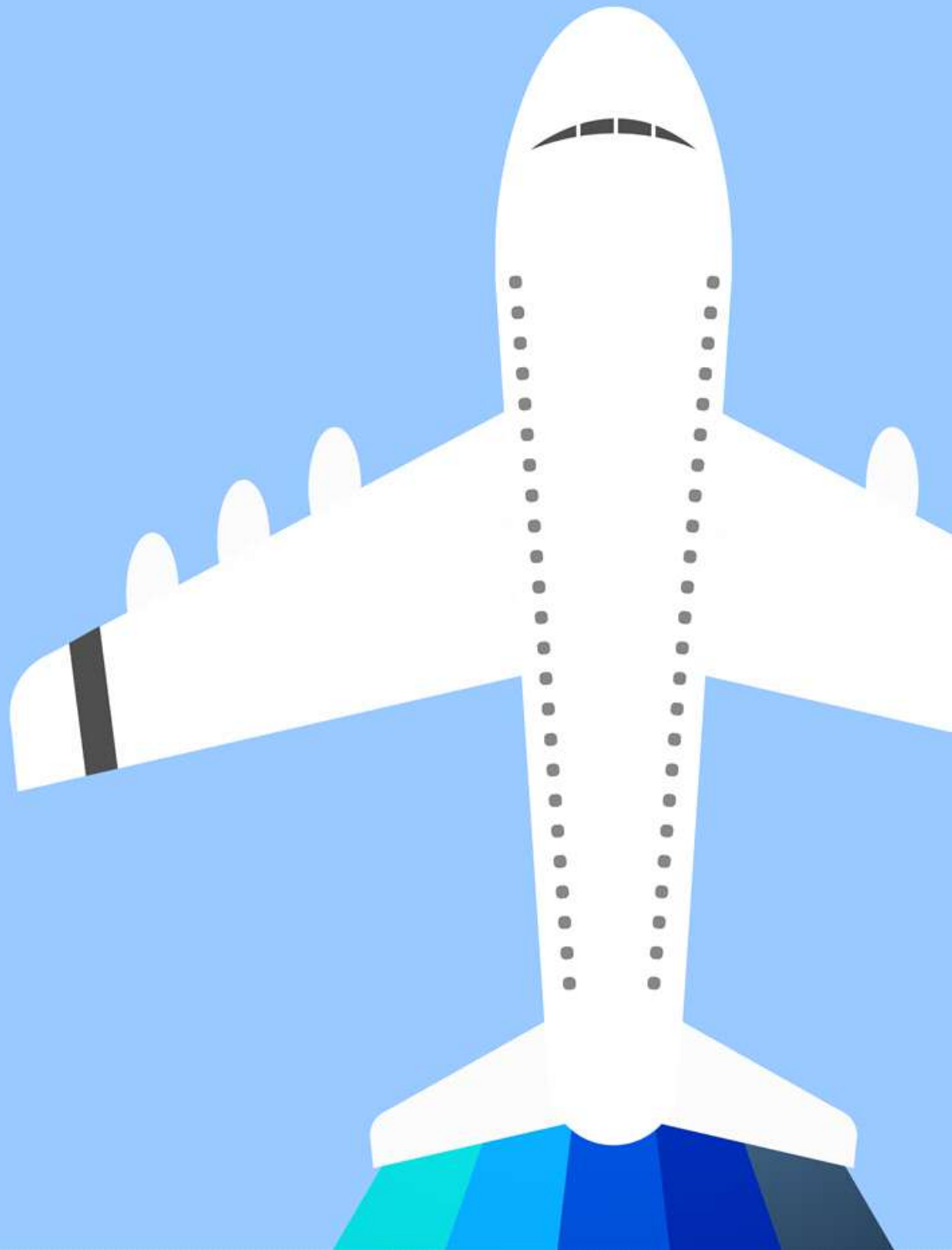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독일 뮌헨

Munich



목 차

I. 독일 개황	3
II. 경제·교역동향	5
III. 투자 동향	13
IV. 지역 현안	15
V. 바이에른주 개황 및 특징	24
VI. 독일 방문 및 체류시 참고사항 ...	27
VII. 현지 주요 연락처	35

I. 독일 개황

1. 국가개요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어명 :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 치	서유럽
면 적	357,595km ²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22.12.31. 기준, '23.9. 발표)
기 후	온대성, 연간 월평균 1.5°~18.7° ('23년 연평균 10.6°)
수 도	베를린(Berlin)
인 구	8,461만 명 (독일인 84.9%, 외국인 15.1%, '23.12.21. 기준)
주요 도시	Berlin(388만 명), Hamburg(191만 명), Muenchen(159만 명) Koeln(110만 명), Frankfurt(77만 명) ('23.12.31. 기준, 뮌헨은 '24.3.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종 교	카톨릭(25%), 개신교(23%), 이슬람교(4%), 무교(44%), 기타(4%) (자료원 : Fowid, '22.12.31. 기준)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Frank-Walter Steinmeier : 국가 원수 - 취임일 : '17.3.19, 재임 : '22.2.13, 임기 : 5 년 ○ 수상 Olaf Scholz (사민당(SPD)) - 취임일 : '21.12.8, (단독 과반수 획득 실패, 현재 녹색당(Die Gruenen/Buendnis) 및 자민당(FDP)과 신호등 연정 구축)

2. 경제지표

명목 GDP	4조 1,262억 유로('23년)
1인당 명목 GDP	48,750유로('23년)
실질 경제 성장률	-0.2%('23년, '24.4.30. 수정 발표 수치)
실업률	5.7%('23년 평균), 6.0%('24.4. 당월)
물가 상승률	5.9%('23년 평균), 2.2%('24.4. 당월)
화폐 단위	유로(Euro)
환율	1유로 ≙ 1,465.92원('24.5.6. 기준)
총 설비 투자	9,042억 유로('23년 +5.6%(명목 기준)/ -0.7%(실질 기준))
국내 총 소비(민간 정부)	2조 9,782억 유로('23년 +5.0%(명목 기준)/ -1.1%(실질 기준))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 수출 : 1조 5,646억 유로(+14.4%(명목 기준)/ +1.6%(실질 기준)) - 수입 : 1조 4,500억 유로(+23.4%(명목 기준)/ +2.8%(실질 기준)) ○ 2023년 - 수출 : 1조 5,621억 유로(-1.4%(명목 기준)/ -2.2%(실질 기준)) - 수입 : 1조 3,525억 유로(-12.4%(명목 기준)/ -3.4%(실질 기준)) * 독일 연방통계청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24.2. 잠정 발표)
주요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23년) -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기타 항공기, 전자집적회로,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기타기계류,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원심분리기·액체용·기체용 여과기·청정기 ○ 수입 ('23년)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석유가스과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의약품, 전화기 및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축전지, 자동자료처리기계

* 주 : 독일 연방통계청의 품목별 세부 통계는 순위가 부재한 관계로 Global Trade Atlas 통계 활용, 단, 독일 정부의 통계와 세부 통계 간 최신 발표 시점에 차이가 있음.

II. 경제·교역동향

1. 독일 경제 현황 및 전망

- 독일 정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용안정과 인플레이션 하락세, 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와 더불어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 및 '24년 GDP +0.3%, '25년 +1.0% 소폭 성장 낙관
 - (경기현황) '23년 독일 경제는 러-우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해외 수주감소, 고인플레이션 지속과 더불어 생산 및 소비 둔화로 -0.2% 마이너스 성장
 - '23. 상반기 독일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미-중 경쟁, 부진한 세계 경제, 중간재 부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경기 하방 요인 속에서도 우려됐던 경기 침체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며, 생산, 소비 부문 기대감 상승
 - *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공급 병목현상 완화와 더불어 '23년 상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러-우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해외 수주감소, 고인플레이션 지속과 더불어 생산 및 소비 둔화 등 경기 약세 국면 지속,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
 - * '23.7.25.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23년 유일하게 독일의 역성장(-0.3%)을 전망**하며 독일 위기론 부각
 - ** 美 +1.8% 中 +5.2%, 日 +1.4, 佛 +0.8%, 英 +0.4% (자료원 : '23.8.6. Handelsblatt)
 -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 하 독일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둔화세 지속, 그러나 '24년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상승 폭 감소*,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 확대 등 경기 개선 움직임
 - * '24.2. +2.9% → '24.2. +2.5% → '24.3. +2.2% → '24.4. +2.2%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 (전망) 독일 정부는 최근 공식 봄 전망에서 '24년 GDP 성장 전망을 기존 +1.3%(23.10.11.) → +0.2%(24.2.21.) → +0.3%로 조정 발표, '25년은 기존 +1.5% → +1.8% → +1.0%로 하향 조정하며 소폭 성장 전망 ('24.4.24.)
 -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4년 생산 증가, 인플레이션 하락세, 소비자 구매력 증가 등 경기 개선 움직임과 더불어 '온전한 회복세' 전망, 민간 소비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 전망, 탄탄한 고용시장과 함께 상당히 높은 실질 임금이 소비 자극 예상
 - 그러나 하베크 장관은 독일의 중기 성장 잠재력이 연 +0.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며, 중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 역설
 - * '24년 독일 정부는 민간 소비 +2.5%, 설비 투자 -0.3%, 수출 -0.6%, 수입 -0.6% 등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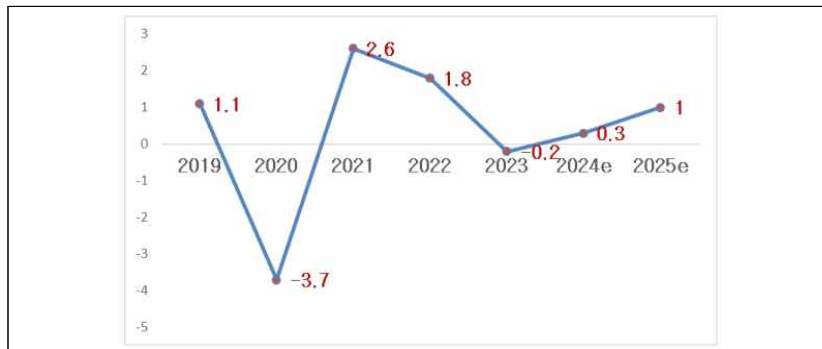
감소세 중 민간 소비가 성장 견인 전망 (민간 소비 외, 실질 기준)

- ** 하베크 장관은 ① 새로운 경제적 역동성 활성화, ② 혁신 강화, ③ 불필요한 관료주의 감축, ④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의 개혁 촉구
- **(생산)** 주요 기간 산업 생산량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은 난망, '24년 기계 산업 회복 난망, 자동차 역시 보조금 조기 종료 및 소비자 수요 감소로 전망 불투명
- * **(기계)** '23년 수주감소 -12%·'24년 생산량(실질 기준) △4%^f, 독일 기계및설비제조협회(VDMA)는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판매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기계 수요 약세 전망, 높은 이자율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이 원인, 고객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와 수주 저해, 최소한 해외 수주는 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
- * **(자동차)** '23년 판매량 +7.3%(284만 대)·총생산은 412만 대(+18%)이나 팬데믹 위기 이전 대비 여전히 -12%,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24년 280만 대 판매(-1%^f) 전망,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19년 보다 약 1/4 적은 수치,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혁신적인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24~'28년 R&D에 약 1,800억 달러) 예정, '24년 독일 내 생산 410만 대 전망 ('23년 대비 0%), 해외 생산량 1.060만 대('23년 대비 +4%)

<독일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GDP 성장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e	2025 ^e
	1.1	-3.7	2.6	1.8	-0.2	0.3	1.0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24.4.30. 수정 발표 기준), 독일 정부('24년과 '25년은 전망치)

- **(소비)** 물가 상승세 둔화 및 임금 상승, 실질 소득 증가 기대와 더불어 '24년 +2.5%^f로 경기 회복세 견인 전망, '25년에도 +2.0%^f로 완만한 증가세 예상
- **(물가)**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화 조짐을 보이며, 물가는 다소 안정세 진입 예상, '24년은 +2.4%^f, '25년 +1.8%^f로 상승 폭 감소 전망
- * '23.2.이래 식품 가격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인 에너지 가격 인상을 추월하며, 가장 큰 물가 상승 요인으로 부상했으나, '24.4. 기준 상승세 다소 완화 움직임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 **(내수 수요)**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과 소비 회복세와 더불어

내수 수요도 소폭 회복세 기대 ('24년 +2.5%, '25년 +1.9% 전망)

- **(고용)** 러-우 사태 이래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생산 및 경기둔화 등 경기 하방 요인에도 '23년 독일 실업률은 5.7%로 전년 5.3% 대비 소폭 상승 (자료원 : '24.1.3. 독일 연방노동청(BA))
 - 독일 연방노동청의 날레스(Andrea Nahles) 회장은 “'23년 취약한 경제가 고용시장에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편”이라고 밝힘 (자료원 : '24.1.3. 독일 연방노동청(BA))
 - '24.4. 실업률은 6.0%로 전월과 동일하나,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만 4,000명 증가 (+0.3%p), 전월 대비 20,000명 감소(계절 조정 통계로는 10,000명 증가)한 275만 명 기록
 - * 독일 연방노동청의 테르첸바흐(Daniel Terzenbach) 지역 담당 이사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경기의 뒷받침이 부족하며, 봄철 경기 상승세는 여전히 미약하다. 독일 경제는 2년 동안 성장모멘텀을 얻지 못했으나, 고용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밝힘 (자료원 : 독일 연방노동청(BA))
 - '24년 실업률은 난민 유입 지속 및 경기 침체 등의 우려로 5.8%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예년 대비 대체로 안정세 예상, '25년에는 5.6%로 소폭의 회복세 기대 (자료원 : '24.4.24. 독일 정부)

□ ECB, '22.7. 이래 열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후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정책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3.9. 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4.25% → 4.5%), 한계대출금리(4.50% → 4.75%), 수신금리(3.75% → 4.0%) 등 주요 정책 금리 모두 0.25%p 인상 ('23.9.14.)
 - ECB는 유로존 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조치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지난 '22.7. 이래 열 차례 연속 인상, 이로써 수신 금리는 '99년 통화동맹 출범 이후 최고 수준
 - *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비용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상품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자료원 : '24.4.30. Die Zeit)
-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4.4. 5회 연속 금리 동결, 인플레이션 하락세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공식 언급
 - *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23.10. 최고치(10.6%)를 기록한 후 지속 하락세('24.3. 및 '24.4. 모두 +2.4%)이나, 여전히 중기 목표인 2% 대보다 높은 수준
 -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목표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긴축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또,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등 미국의 경제 변화가 유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ECB는 미 연준(FED)과 독립적으로 역내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 (자료원 : '24.4.11. ECB, '24.4.12. Handelsblatt)
 - * Ifo 경제연구소 역시 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지속 감소 전망, 아울러 2%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으로 조기 복귀 전망에 따라 유럽중앙은행 (ECB)은 곧 금리 인하 결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 '24.4.3. Handelsblatt)

2. 독일의 교역동향

* 통계 기준(달러화)을 위시해 통계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GTA 수출입 증감률은 독일연방통계청 발표 수치와는 편차 有

□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 (수출국) '23년 독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 브렉시트 이후 교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던 영국은 전년에 이어 8위 유지
 - 중국(4위), 오스트리아(7위), 스위스(9위) 등을 제외한 모든 10대 수출국이 모두 완만한 증가세 기록, 對 영국 수출이 +9.4%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對 중국 수출은 상반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6.4% 감소
 - 한국은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한 18대 수출국으로 對 한국 수출 규모는 22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4%로 소폭의 감소세 시현
- (수출품목) '23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기타항공기 등이며, 총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순위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완화 영향 속 의약품의 수출이 -10%로 감소하였고, 기타항공기가 +18.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 외에도 수출 1위 및 3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각각 +13.7%, +8.1%를 기록하며 양호한 증가세 시현

<독일의 5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2022년			2023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676,462	2.8	-	1,719,244	2.6
1	자동차	155,951	11.6	자동차	177,315	13.7
2	의약품	74,257	15.5	의약품	66,830	-10.0
3	자동차부품	61,453	-4.7	자동차부품	66,425	8.1
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44,407	-7.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45,522	2.5
5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25,382	67.9	기타항공기	26,423	18.6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및 수입품목

- (수입국) '23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네덜란드, 미국,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체코가 벨기에를 제치고 예년과 같이 수입 7위국으로 부상, 브렉시트 이후 對 영국 수입은 '22년 +3.5% 상승세 이후 다시 -6.4%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영국은 수입국 12위 → 13위로 하락
 - '23년 對 한국 수입은 147억 달러를 기록하며 +4.3%의 증가세 기록, 순위는 전년 28위 → 25위로 상승하며 예년의 입지 회복,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증가(0.9% → 1.0%)
- (수입품목) '23년 독일 수입품목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전년도 높은 상승세(+54.6%)를 나타냈던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대신 예년의 주요 수입품목이 다시 강세, 이에 5대 수입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팬데믹 완화로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과 전년도 기저 효과로 석유 및 역청유(원유)가 전년 대비 각각 -27%, -12.9% 감소

<독일의 5대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2022년			2023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582,721	11.3	-	1,475,987	-6.7
1	석유가스 및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73,384	54.6	자동차	78,519	14.6
2	자동차	68,516	1.5	자동차부품	46,802	17.4
3	석유 및 역청유(원유)	63,035	56.6	석유 및 역청유(원유)	46,048	-27.0
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40,855	0.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35,581	-12.9
5	자동차부품	39,857	4.7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32,012	-7.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3. 한국과의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수출) '23년 對 독일 수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U\$103.2억 기록
 - '22년 이래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수출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농약 및 의약품의 수출 감소세 지속
 - '23년 러-우 사태 및 코로나發 공급망 병목현상이 완화되며 자동차 부품 수출 개선 및 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에 편승한 전기차 수요 증가세와 더불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
 - 반면, 반도체 업황 부진 및 가격 하락세에 따른 반도체 수출 및 독일 및 유럽 내 생산 확대 증가 추세로 전자·축전지 수출이 다소 부진
 - '24.3. 누계 기준 對 독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U\$24억을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편이나, 고무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수요가 성장세 견인

- (수입) '23년 對 독일 수입은 전년 대비 미미한 감소세(0.0%)를 나타내며 U\$236억 기록
 -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
 - '24.3.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U\$51억을 기록,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반도체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소비 수요 둔화의 영향 속 대체로 높은 감소세 시현

- (무역수지) '23년 무역수지는 총 U\$-133억으로 지난 '15년 이래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소폭 감소
 - '24.3. 누계 무역수지는 수입 감소세와 더불어 U\$-27억으로 예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

<한-독일 교역동향>

(단위 : U\$백만,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20	9,576	10.3	20,681	3.7	-11,105
2021	11,110	16.0	21,996	6.4	-10,886
2022	10,068	-9.4	23,615	7.4	-13,547
2023	10,317	2.5	23,611	0.0	-13,294
2024.3	2,406	-1.0	5,063	-17.6	-2,657

자료원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 '23년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품 병목현상은 '23.4.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와 더불어 소폭 완화되었으나, 독일 인플레이션 상승세 지속 및 소비·생산 둔화 등에 따른 경기둔화 속 수입 수요 감소 영향과 더불어 한국의 對 독일 수출은 자동차(+62.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0,109%), 고무제품(+34.7%)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소폭의 증가세에 그침
 -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2년 말부터 스마트폰 및 가전 등 하방 산업수요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부진 및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으로 감소 폭 확대(-21.6%)
 -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20년 및 '21년 수출 1위로 부상했던 농약 및 의약품 역시 전년에 이어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33.5% 감소세로 수출 5위 기록
 - 한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21년 100%의 감소세 및 '22년 수출이 전무한 데 따른 기저효과, 친환경 선박 부품 수요 확대 추세와 더불어 +10,109%의 급증세 시현
- '24.3 누계 기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0,170%), 고무제품(126.6%), 반도체(57.3%), 무선통신기기(+38.7%)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선전 중
 - 자동차와 건전지 및 축전지의 경우 현지 보조금 지급 종료에 따른 수요 감소세와 역내 수급 확대 등의 요인 하 각각 -37.8%, -66.4% 등 높은 감소세 기록
 - 특히 반도체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출이 큰 폭의 회복세를 나타내며 한국의 대독일 수출 견인

<對독일 10대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품목	2023년		2024년 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10,317	2.5	2,406	-1.0
1	자동차	2,802	62.3	427	-37.8
2	반도체	787	-21.6	241	57.3
3	자동차부품	581	6.9	167	11.0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06	10,108.6	166	10,169.6
5	농약및의약품	601	-33.5	148	14.1
6	무선통신기기	471	-24.3	144	38.7
7	합성수지	280	-11.6	102	20.1
8	고무제품	264	34.7	100	126.6
9	건전지및축전지	681	-34.5	72	-66.4
10	기계요소	186	-8.0	56	24.3

자료원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 '23년 수입 1, 2위인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반도체가 각각 -0.8%, -27.1%, -9.4%를 기록하며 부진한 가운데 그 외 품목군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
 -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전년의 증가세(+8.5%)에 이어 +36.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21년 8위 → '22년 6위 → '23년 3위로 상승
 - 한편, 전년도 감소세를 나타냈던 원동기 및 펌프(-9.7%), 기계요소(-4.2%), 계측제어분석기(-3.6%) 등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각각 +20.9%, +15.4%, +9.9%를 나타내며 증가세로 전환
- '24.3. 누계 기준으로는 국내 산업생산 및 경기둔화의 영향 속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10대 품목이 대체로 높은 감소세 기록
 - 부진한 국내 산업수요 속에서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반도체 수입이 +34.8%, +17.4%를 기록하며 한국의 대독일 수입 견인
 - 수입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농약 및 의약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수입 감소세의 주요인으로 지목
 - 이 외, 주요 산업 품목군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기계요소의 경우 꾸준한 교체 수요와 더불어 +8%의 증가세 기록

<對독일 10대 수입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품목	2023		2024년 3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23,611	0.0	5,063	-17.6
1	자동차	6,584	-0.8	1,107	-34.7
2	농약및의약품	1,822	-27.1	446	-23.6
3	반도체제조용장비	921	36.2	301	34.8
4	반도체	1,009	-9.4	289	17.4
5	계측제어분석기	888	9.9	197	-5.2
6	원동기및펌프	749	20.9	193	-1.6
7	기계요소	694	15.4	172	8.0
8	자동차부품	733	5.1	162	-14.3
9	산업용 전기기기	664	10.1	161	-8.5
10	전자응용기기	448	0.6	97	-22.6

자료원 : K-stat

III. 투자 동향

□ 독일의 對 한국 투자

○ '23년 대한 투자 현황

- **(꾸준한 대한 투자 유지)** 독일의 對 한국 투자는 매년 50건 내외, 5억 달러 내외의 투자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23년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독일 Merck사의 272백만 달러 대한 투자가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통계상 미반영된 결과
- **(바이오·화학 산업 투자 확대)** '23년 바이오 제약·화학 부문 투자 확대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투자는 꾸준히 지속
- 韓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 다각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
 - * '23년 주요 투자 사례 : M사 바이오 공정시설 관련 2.7억 달러, S사 바이오 제약설비 관련 2.300만 달러 ('22년 3억 달러 투자에 이은 추가 투자), C사 미래차 부품 공장 확장 관련 4.300만 달러, V사 전동화 부품 생산설비 확장 관련 8.000만 달러, B사 국내 기업 H사와 특수계면활성제 생산 관련 합작법인 투자, S사 국내 기업 D사와 풍력발전 관련 업무협약 체결

<최근 5개년 독일의 대한 투자 추이 (연도별 투자신고 기준)>

(단위 : US\$백만, 건)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금액	399	517	2,836 (560*)	538	206 (459**)
신고건수	53	51	50	60	47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딜리버리 히어로 22억 7,600만 달러 대규모 대한 투자 제외

** Merck사의 2억 7,200만 달러 대한 투자 포함

○ 대한 투자 전망

- **(독일 경제 역성장으로 인한 투자 둔화 전망)** 에너지 가격 급등, 기록적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인한 '23년 경제 역성장(-0.3%) 및 '24년 낮은 경제 성장률 전망(+0.2%)의 여파로 독일 기업의 전반적 투자 규모 축소 예상
- **(대중국 디리스크링 전략)** 독일 정부는 대중 경제의존도 낮추기에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링' 전략을 공식화.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내 독일 기업의 투자 대상 안전장치 강화, 중국의 독일 주요 인프라 투자 감독 강화 예고
- **(ASEAN 국가들과 투자유치 경합)** 독일 기업은 대한민국 투자의 어려움으로 한국의 내수시장

감소, 인건비 상승, 공급망 확보 등을 예시로 들. 그렇기에 중국을 대신할 대체 투자처로 내수시장이 크거나, 인건비가 싼 강점이 있는 다른 ASEAN 국가들을 투자처로 모색할 가능성도 有

- BioNTech의 對 싱가포르 바이오산업 투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함

□ 한국의 對 독일 투자

- (투자동향) 우리 기업의 對 독일 투자는 총 80억 달러, 887개의 법인 진출
 - 독일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23년 신규법인 설립 전년 대비 12건 감소하였으나, 투자 금액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
- (진출유형)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판매·영업거점 구축이 주요 목적
 - 유럽 최대 내수시장, 현지 및 한국인 고급 인력 수급 용이성, 한국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교통·물류 편리성으로 독일은 판매 및 서비스거점으로서의 강점 보유
- (진출업종) 자동차부품·화학·기계·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 중점 진출
 - 삼성, LG,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인근에 유럽법인을 설립하여 유럽 시장 성공적 진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 독일 지상사 협회인 재독한국경제인협회(Koebag) 프랑크푸르트 소재
- (최근트렌드) 디지털 및 그린 전환에 따른 독일 내 공급망 재편 가속 → 유럽 역내 GVC 구축 및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독일 투자 진출 지속
 - 독일 정부의 배터리셀 유럽 생산허브 구축 목표('30년까지 유럽 전체 생산량의 25% 점유) 등 디지털·그린 전환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급망 재편 분야 투자 진출 지속
 - * '23년 삼성물산社와 성일하이텍社의 합작법인 독일 튀링겐주 게라(Gera)에 배터리 재활용공장 설립 투자
 -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독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진출도 꾸준히 발생
 - ☞ '20년 7건, '21년 3건, '22년 12건, '23년 6건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독일 투자 추이 (연도별 해외직접투자통계 기준)>

(단위 : 억 달러,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80~'23)
투자금액	2.8	7.2	7.3	3.5	5.1	5.1	80.8
신규법인	43	41	40	32	45	33	88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IV. 지역 현안

□ 정부·산업의 전방위 탈탄소 노력 확산 및 공공투자 집행 본격화

- (그린) EU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동참을 위한 제반 조치 시행
 - * 『Fit for 55('21.7.)』: '50년 기후 중립, '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90년 대비)
 - (독일 정책 목표) ('23.4.) 脫원전 달성 이후 (~'30년) CO₂ '90년 대비 65% 감축·(~'38년) 脫석탄·(~'45년) 기후 중립
 - * '24~'27년 투자 규모: €2,118억(건물 리모델링·수소산업 육성·전기차·철도 인프라 등 기후 전환기금(KTF) 예산** 배정)
 - ** '24.1.22.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3.11. 연방헌법재판소의 예산 운용 위헌 판결(예산 600억 유로 삭감)로 중단됐던 기후전환기금 지원 신청 재개 발표로 자금 지원 정상화 기대
 - (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독일 정부는 '45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 확대 전략 발표 ('23.7.26.)
 - * '30년까지 수전해 시설을 두 배 확대, '28년까지 최소 1,800km 길이의 수소 파이프라인 설치 추진
 - (제반 조치) 신속한 인프라 확장, 기후 보호법 조정, 난방시스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 보호 및 계획 가속화를 위한 현대화 패키지' 결의안 발표 최종 합의('23.3.28.) 및 기후보호법 개정('24.4.26.) 신건물에너지법(GEG) 개정안('23.9.8. 연방의회 승인 및 '24.1.1. 발효), 기후 중립 생산 전환을 위한 기후보호계약(CCFD, 일명 탄소차액계약제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발족('23.6.) 및 제1차 입찰 시행('24.3.12.)
 - (산업계) 탈탄소화 과제 속 철강 및 기계산업계, 저탄소 생산공정 전환에 적극 투자
 - * 잘츠기터(Salzgitter/ 철강), 튀센크루프(Thyssenkrupp/ 철강),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철강), 도이체 포스트(Deutsche Post) DHL/ 우편·물류) DB 쉐커(Schenker/ 물류) 등 탈탄소 선도
- (디지털)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 산업별 DX(Digital Transformation)·5G·클라우드 등 인프라 기반 구축 등
 - * '22년 총 27개 EU 회원국 중 독일의 디지털 역량 지수: 13위 ('22년까지 발표)
 - 범정부 차원의 협업으로 '25년까지 공공행정, 의료시설, 교육 등 디지털화 추진 및 18개의 세부 프로젝트(Leuchtturmprojekte)* 추진
 - * △데이터, △디지털 신분증, △온라인 환자 관리 시스템, △국가 온라인 평생 교육 플랫폼, △농촌 지속 가능 디지털화, △AI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
- (공공투자) 지속 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對유럽 투자를 위한 EU 경제회복기금(RRF) 자금 전도 본격화
 - 독일 정부, 총 280.2억 유로(기존 256억 유로에서 확대 신청)의 EU 경제회복기금(RRF) 보조금

- (’24.5 기준) 중 ’26년까지 그린(최소 47%) 및 디지털 전환(최소 48.1%)에 중점 지원 예정
- (기대효과) RRF 기금을 통해 ’26년까지 독일 GDP 0.4~0.7% 증가 및 최대 1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 * 아울러 제한적인 재정 정책으로 귀결되는 부채브레이크 개혁 및 계획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조달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등의 여부가 차후 공공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에 관건으로 작용 예상
 - ** 독일 IW 경제연구소와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의 새로운 연구 결과, 독일의 미래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6,000억 유로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특별 기금이나 재정 규칙의 개혁 찬성 (’24.5.15. Handelsblatt)

□ 독일 및 유럽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편승한 소·부·장 시장 본격 공략 기회

- **(반도체 투자유치)** 독일 정부, 독일 내 반도체 생산 입지 구축에 총 200억 유로(약 29.3조 원) 지원 예정 (~’27년)
 - **(배경) (반도체 자립)** 독일 및 EU 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노력에 편승한 시장 진출 기회 모색
 - 유럽 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부재로 해외 파운드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역내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팹’ 신축에 총력
 -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공급망 다각화 및 역내 첨단 생산 입지 구축
 - * 美 인텔(Intel)과 울프스피드(Wolfspeed), 대만의 TSMC 등
 - **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Infineon) 역시, ’23.5. 50억 유로(약 7조 원)를 투자, 동부 드레스덴(Dresden)에 팹 착공, ’26년 이후 전력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 생산 예정
- **(EU 반도체법)** EU 집행위, ’30년까지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유치와 ’30년 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 역내 생산(현 약 10%)을 목표로 반도체법 발효(’23.9.21), 총 430억 유로 투자
- **(기대효과)** 독일의 반도체 산업 입지 구축에 일대 전기 마련, 독일 및 EU 역내 미래 반도체 산업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진일보
 - * 지원되는 독일 기업은 연구 개발, 생산시설 등에 수백억 달러의 추가 민간 투자를 할 것으로 추정, 동시에 국가 프로젝트는 4,000개 이상의 직접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자료원 : ’23.6.8. Handelsblatt)
- **(우리 기업 시사점) (소·부·장 수요)** 보쉬(Bosch), 인피니언(Infineon), 인텔(Intel), STM, 울프스피드(Wolfspeed) 등 유럽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독일 생산시설 건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기회 발생 및 소재, 부품, 장비 수요 증가 전망
 - * 현재 독일 내 설립계획에 있는 팹 공장은 EU 반도체법 도입으로 인해 대규모·고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장 내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는 다양한 아이템은 글로벌 기업에게서 납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

** 독일 및 유럽 소재/ 진출 반도체 기업과의 잠재 협업 유망분야 관련 KOTRA [2024 독일 진출전략 참고 요망](#)

- 유럽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로 직결,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유럽 시장진출 확대 적기, 유럽 내 파운드리 공장 준공과 관련한 반도체 장비 구매 프로세스 사전파악 및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 기회 발굴이 중요

□ 공급망 위기로 인한 對중국 정책 기조 변화 : 디리스크(Derisking) 전략 및 원자재 공급 지원 강화

- (공급망 다각화)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거치며 전반적으로 구조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저성장, 원자재 문제, 공급망 혼란 및 脫글로벌화 부상
 - 특히 독일은 공급망 혼란 속 쏠림 현상의 위험을 자각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우선
 - *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에너지 위기가 경제·사회 위기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22.9.30. Handelsblatt)
 - (위기의식) 최근 독일은 중국의 독일 첨단기술 노하우 획득을 위한 접근에 경계
 - * IW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2년 중국의 독일 라이선스 수입은 '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특히 '20 ~ '22년까지 약 50% 증가 ('23.8.9. Handelsblatt)
- (對 중국 의존도 감축) 솔츠(Scholz) 내각,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디리스크' 對 중국 전략 (Strategy on China)' 추진 ('23.7.13.)
 - * '22.11.17.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독일과 EU 역량 강화, 경제 및 정치적 파트너십의 다각화'에 주안점을 둔 대중 전략 초안 발표
 - 솔츠(Olaf Scholz) 총리 및 독일경제·기후보호부는 對 중국 정책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크(Derisking)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
 - 적극적인 원자재 정책 추진, 원자재 파트너십 확장, 대체공급선 확보, 물류 안정화 등 공급망 자립 및 전방위 산업 내 공급망 다각화 노력 경주
 - 獨 5G 인프라 사업(특히 보안) 내 중국 기업 비중 축소 및 배제 본격화 양상
 -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 취지에 동의하나 실제 추진 방안에 신중한 접근 촉구
 - * '24.4. 독일 지멘스(Siemens), 지난 50년 넘게 구축된 글로벌 벨류체인이 단기간 내 바뀔 수 없으며, 독일 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수십 년 지속될 것이라 경고, '24.4.13~16. 솔츠(Olaf Scholz) 총리는 방중 일정 중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강조하며, EU의 징벌적 관세 위협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 함께 방중한 경제사절단 대표 역시 중국이 보복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 이는 특히 독일 제조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선제 대응)**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원자재 기금 도입 추진 ('24년~)
 - '23.7.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24년부터 약 10억 유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원자재 기금 도입 추진
 - * '23.8.1.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허가제 시행 등에 의해 높은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우려 증가, 독일산업협회(BDI)에 따르면, 독일에서 수입되는 갈륨의 75%, 게르마늄의 65%가 중국산이며, 바흐터(Matthias Wachter) 부사장은 “중국의 많은 비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는 이미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높다”라고 지적하며 ‘다각화와 새로운 역량 개발의 필요성’ 강조 (자료원 : '23.7.27. Handelsblatt, '24.3.13. Focus)
 - 기금은 독일 연방정부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원자재 프로젝트 참여와 특별 기후전환기금(KTF)으로 충당 예정
 - EU 역시 '24.5.23.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효,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재활용 촉진 추진
 - * CRMA(Critical Raw Material Act) : 원자재 역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핵심·전략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역내 생산 역량 확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요건 등을 강화한 법안
 - 해당 법의 일환으로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 선정을 통해 허가 간소화, 자금조달 등을 지원 예정
 - * 아울러 EU는 당초 경쟁 왜곡 및 소비자 이익 훼손 우려로 공공 보조금을 엄격히 통제 중이나,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전향적 입장 선회 중
- **(우리 기업 영향)** 중국 전략 실현을 위한 독일 정·재계의 향후 활동 주목 및 영향 분석 필요
 - 현재 독일의 對 중국 전략 기조 변화와 더불어 전방위 산업 및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및 재편 등에 대한 관련 동향 추이 모니터링 필요
 - *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강경한 방침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 독일 경제·기후보호부가 선언한 목표는 인도, 베트남,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와 독일 기업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23.10.19. Deutsche Welle)

□ '35년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관련 찬반 논쟁 및 속도 조절론 대두

- EU,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 및 신규 상용차 CO₂ 배출량 규제 추진 중 ('23.3.),
 - *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Fit for 55 패키지’ 차원에서 자동차(승용차와 3.5~7.5t의 소형상용차)의 CO₂ 배출 규제안에 대한 3자 합의('22.10.) 및 '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최종 결정 ('23.3.28. EU 27개 회원국 합성연료(E-Fuels) 예외 조항을 포함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최종 승인)
 - 이어 '24.4.10. 유럽의회, 대형화물차 및 버스 CO₂ 배출규제(CO₂ 배출량 '19년 대비 '30년 45% → '35년 65% → '40년 90% 감축) 법안 승인 및 '24.5.14. EU 이사회 승인

- 합성연료(E-Fuels) 사용 차량에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 '24년 가을경까지 E-Fuels 차량의 범위 및 구체적 세부 사항 관련 결정 예정
 - *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26년 내연기관의 폐지 재검토 강조, '26년 제로 배출 목표에 대한 재평가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세부 사항은 여전히 조정 가능 예상
- 독일 자동차협회(VDA), 해당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 VDA 뮐러(Hildegard Müller) 회장은 내연기관 분쟁에서 연방정부와 EU 집행위 간의 합의를 '기후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 "우리는 EU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후 친화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기업별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지
 - * (완성차) Porsche·BMW (Tier1) Bosch·ZF·Mahle 등
- 최근 '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관련 찬반 논쟁 및 속도 조절론 부상
-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Automobilwoche,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 이슈화 ('24.4.3.)
 - **(Contra)** EU는 전기차 전환에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무조건 '35년의 기한을 고수하는 것은 산업 정책적으로 불합리
 - *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는 공급망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계획으로, 전기차에 대한 낮은 수요는 소비자가 여전히 전환을 주저하고 있음을 방증, 충전 시간·주행거리·충전 인프라·가격이 적당하면 소비자는 스스로 이를 선택할 것
 - ** '23년 독일 자동차 시장의 순수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1.4% 증가하였으나, '24.3. 누계 기준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3% 미만('23년 2.1%) (자료원 : 독일연방 도로교통청(KBA))
 - *** Automobilwoche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 약화로 올해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는 '23년(약 52만 대)에 비해 약 1/3 정도 감소한 35만 대 예상, 이는 '21년 수준에 해당 ('24.5.14.)
 - **(Pro)** 모빌리티의 탈탄소화는 불가피하며, 경쟁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다음 통합 단계의 생존자가 될 것
 - * 전기차 경쟁은 세계적인 현상, 배터리 기술과 생산비용의 핵심 요소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향후 경쟁력 상실 우려
 - 최근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 역시 '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연기 계획 움직임
 - **(주요 요인)** ① '23.12.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종료로 업계 매출 부진 급격 가속화, ② 충전 인프라 충분 여부 등 전기차에 대한 확신 부족, ③ 저가 전기차 모델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30년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급 1,500만 대 달성 목표 적신호
 - (메르체데스-벤츠) CEO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 최근 EU 내연기관의 종료 일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표명,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28년부터 전기차 전환 전략 목표 수정, '30년 대까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24.5.13 Automobilwoche)
 - * "변화의 속도는 시장 상황과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고,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하며, '30년까지 순수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Mercedes의 약 50%만 차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구체적인 목표도 수정 발표 ('24.5.8.)
- ** 아울러 EQS, EQE 후속 모델을 위해 특별 설계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MB.EA-Large)* 개발을 전면 중단 ('24.5.13.)
 - BMW도 '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지속 생산 계획
 - * 모델 시리즈의 전기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나, 내연기관차의 종료 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시장이 있는 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입장 ('24.4.5.)
 - ** BMW CEO 칩제(Oliver Zipse), EU의 '내연기관 차량 금지' 시행 방안 관련 제안 및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관세 부과 계획에도 회의적인 의견 표명, 유럽의회 선거 이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24.5.8. Automobilwoche)
 - 한편 폴크스바겐(VW)은 '35년 내연기관 단계적 폐지 계획 유지, CEO 블루메(Oliver Blume), “E-모빌리티는 짧은 시간 안에 내연기관보다 뛰어난 기술이 될 것”으로 낙관
 - * 단 CEO 블루메는 '35년 기한을 앞두고 CO₂ 차량 배출량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차를 둔 목표”를 요구 ('24.3.13.)
- **(우리 기업 영향)** 독일 자동차 업계의 탄소 중립 속도 가속화 추세에 따른 전동화 전략에 편승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 판로 개척과 동시에 차후 EU의 협의 과정과 입법 절차 예의주시 및 적절한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EU 지속 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공급망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발효 임박

- * (참고사항)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차후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돼 효력 발생 예정, 독일은 이미 '23.1. 이래 자체적으로 공급망실사법 시행 중
- **(배경)** 환경 및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의 ESG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제고
- **(현황 및 전망)** '24.4.24. EU 의회 승인, 지침 발효 예정(발효 후 적용 기간 3~5년)
- EU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 예정이며, '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에 적용될 예정
 - * '23.6.1.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공급망 실사 지침 승인, EU 이사회 최종 승인('24.5.24.) 후 관보 게재('24.6.말 전망) 및 발효('24.7. 전망)
- **(실사 대상)** 업스트림 및 일부 다운스트림(재활용, 폐기 등)
- * 공급망(Value chain) 범위를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로 지정하고 제품·서비스 사용 단계의 다운스트림 제외
 - **(적용 시점)** 발효 2년 후(국내법 전환), 기업 적용 기준에 따라 3~5년 단계별 적용 예정
 - * 세부정보는 KOTRA 해외시장뉴스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유럽의회 최종 통과' 자료 참고 요망
 -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EU 내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높은 수준의 인권과 환경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은 이미 '23년부터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시행 중
 - 기업에 인권, 환경 등 관련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실사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주요 내용)** ①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기업 자체 사업 영역, 직·간접 공급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최초 포함, ②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③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④ 인권 보호 강화, ⑤ 사람/환경 유해 물질 사용 규제
 - 기업의 리스크 관리 의무는 ① 기업의 자체 사업영역, ② 직접 공급업체, ③ 간접 공급업체에 적용
 - EU 공급망 실사지침이 발효될 경우 EU 지침이 적용 우의, 다만 EU 지침은 실사 의무 및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돼 해당 기업에 직접 적용

<EU 공급망 실사지침과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 기업 및 주요 내용 비교>

구분	EU	독일
적용 대상 기업	직원 수 1,000명 초과, 전 세계 순매출액(전년도 기준) 4억 5,000만 유로 초과 EU 기업 및 그 모기업 * 최종 법안의 적용 대상기업은 약 5,000 개사로, 기존 합의안 대비 70%가량 축소 EU 역내 순매출액(전전년도 기준) 4억 5,000만 유로 초과 역외 기업 및 그 모기업	독일 소재 기업(외국 기업 포함)
직원 수 기준	(일반) 발효 3년 후('27년): 직원 수 5,000명 초과 4년 후('28년): 직원 수 3,000명 초과 5년 후('29년): 직원 수 1,000명 초과 (로열티 수익) 상기 적용 기준(직원 수, 매출액)에는 미치지 않으나, 다음의 2개 기준(①+②)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①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초과 ② 세계 순 매출액이 8,000만 유로 초과 직원 수 기준 별도 언급 無	2023년 독일 내 직원 수 3,000명 이상(900여 개), 2024년 독일 내 직원 수 1,000명 이상(4,800여 개), (자료원 : 에너지기후보호 재단)
	(로열티 수익) 상기 적용 기준(매출액)에는 미치지 않으나, 다음의 2개 기준(①+②)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①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역내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고 ② EU 순매출액이 8,000만 유로 초과	별도 기준 無

매출 기준	역내	발효 후 3년: 세계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4년 후: 세계 순 매출 9억 유로 초과 5년 후: 세계 순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별도 기준 無
	역외	발효 후 3년: EU 역내 순 매출 15억 유로 초과 4년 후: EU 역내 순 매출 9억 유로 초과 5년 후: EU 역내 순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금전적 제재	실사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순 매출 기준 금전적 제재 부과 최대한도는 전 세계 순 매출의 5% 이상		최대 80만 유로/ 연 매출 4억 유로 초과 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의 최대 2%(기준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과태료
민사 책임	민사 책임 부과		無

* 주 : KOTRA EU 주간 브리핑 및 KOTRA 보고서 '[쉽게 이해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 FAQ](#)'

- (우리 기업 시사점)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리스크 검토 및 유럽 협력사의 높은 인권, 환경 기준 요구에 대비 필요, 국내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의 관리 지원 등의 조치 필요
 - * 실사 관련 증빙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필요하며, 역외기업은 관할 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EU 역내 대리인 지정 필요
 -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초과와 직접 적용 대상기업이 아니어도, 인권·환경 의무 준수가 해당기업에 대한 공급기업(Supplier)으로서의 주요 조건으로 부상

□ 독일 내 한류 인지도 확산에 따른 K-상품 수출 편승효과

- (포스트 코로나) 고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 속 오프라인(Offline) 시장의 귀환 및 소비 양극화를 비롯한 엔데믹 소비문화 확산
 - (주요 소비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재평가해 새로운 소비 패턴 부상, 의식적 소비(예; 지속 가능 소비)·지속가능성·AI·다기능(하이브리드 제품) 선호·공유문화(임대, 구독(Abo)과 재활용) 등 엔데믹 소비문화 보급 확산
 - 특히 고인플레이와 더불어 고품질,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 신뢰도 상승
 - * 브랜드 품목 대신 저렴한 PB 제품 인기, 독일 소비자의 76%가 쇼핑 시 제품 가격에 주의, 전년 대비 +8% 증가 (자료원 : Bring! Magazine)
 - (소비의 N극화) 경제 양극화 및 취향 차이 심화로 짠테크와 과시형 소비 또는 저가 제품과 프리미엄 시장이 공존
- (한류 마케팅) 독일 내 한류 소비 증가 추세를 대독일 수출의 기폭제로 활용 기대
 - 지역 내 주요 행사에 편승한 한류 마케팅도 활기,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시장 진입에 긍정적 효과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독일 내 한류 인기 확인
 - * '23.6.29~30. KOTRA 한류박람회(KBEE 2023: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23)에서 신규 수출·수출 초보 기업 성과 도출, 10건의 MOU 체결 및 B2B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188억 원 규모의 계약 성사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수출 다변화)** 대독일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콘텐츠 발굴 및 수출 다변화 적기 및 진출 방식 다각화 기회
 - * K-뷰티 중심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K-방역으로 확산 → K-패션, K-화장품, K-식품, K-굿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수출 효과 창출
 - 다양한 K-콘텐츠 수출화 전략 및 브랜딩 강화, 현지 맞춤형 전략 집중 필요
 - **(진출 방식 다각화)** 온라인을 위시해 자체 지점 또는 프랜차이즈 등 진출 방식 및 진출 분야 확대를 위한 분기점 기대
 - 또한 아마존*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Zalando(의류 및 잡화류), Douglas(화장품) 등 로컬 온라인 유통망 입점 및 K-뷰티 화장품 전문 포털을 통한 시장 판로개척도 다시 활기
 - * [아마존 코리아의 아마존 유럽 입점 안내 자료](#) 참고, '23년 KOTRA 뮌헨 주관 '아마존 독일 마켓 플레이스 활용 사업'을 통해 지원기업 수 128개 사, 신규입점 14개 사, 수출 초보기업 11개 사, 매출 595만 달러 등의 성과 (자료원 : KOTRA 뮌헨 무역관)

V. 바이에른주 개황 및 특징

1. 바이에른주 개황

위 치	남부 독일
면 적	70,552 km ² (독일 전체 면적의 20%)
주 도	뮌헨(München)
인 구	1,339만 명 (2023년 6월 31일 기준, 바이에른 통계청)
주요 도시	뮌헨(158만 명, 주도), 뉘른베르크(54만), 아우구스부르크(31만), 뷔르츠부르크(13만) *'23년 기준
GDP	€7,685억 (2023년, 독일 전체 GDP의 18.65%)
실업률	3.4% (2023년, 독일 전체 5.7%)
경제성장률	0.3% (2023년, 독일 전체 -0.2%)
교역규모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액 : 2,288억 유로(2023, '22년 대비 5.9% 증가) - 주요 수출국 : 미국(285억), 오스트리아(180억), 중국(174억), 이탈리아(147억), 프랑스(146억), 영국(117억), 폴란드(108억), 네덜란드(123억) - 주요 수출품 : 기계, 자동차, 발전 및 배전 장치, 자동차 부품 등 ○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액 : 2,414억 유로(2023, '22년 대비 3.4% 감소) - 주요 수입국 : 중국(357억), 오스트리아(188억), 체코(168억), 이탈리아(142억), 폴란드(141억), 미국(137억), 헝가리(129억), 네덜란드(115억) - 주요 수입품 : 기계, 발전 및 배전 장치, 석유 및 천연가스, 전자 부품 등
주지사	닥터 마르쿠스 쾨더 [Dr. Markus Soeder (CSU) / 취임일 : 2018.03.16]
공공기관/기업 진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 남양넥스모, 네오펙트, 두산전자, 디엠티, 뷰런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 SDI, 서울로보틱스,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센서뷰, 소울에너지, 아우토크립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에이디테크놀로지, 에스엘, 일진글로벌, 펌트론, 텔레칩스, 현대로보틱스 등 ○ 공공기관 : KOTRA
대표 기업	Allianz(보험), Siemens(엔지니어링), BMW(자동차), AUDI(자동차), Airbus(항공), MAN(자동차,기계), Linde(에너지), Infineon(반도체), Wacker Chemie(화학), Schaeffler(자동차부품), ADIDAS(스포츠), PUMA(스포츠), MTU(기계, 항공부품)

2. 바이에른주 특징

□ 연구개발 및 하이테크 산업 중심지

- 독일 주요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독일 우주 항공 연구소 등이 소재
-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항공우주, 의료기기 및 환경산업 등이 고루 발달
- 주 정부 차원에서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하고 있음

□ 경제수준

- 바이에른주의 1인당 GDP는 57,343 유로로 독일에서 2번째로 높으며(1위 함부르크 79,196 유로, 2023년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는 29,209 유로로 독일에서 가장 높음(2위 함부르크 29,122 유로, 3위 바덴뷔르템베르크 28,793유로, 2023년 기준). 실업률은 3.4%로 독일 16개 주 중 가장 낮음(독일 전체 5.7%, 독일 수도 베를린 9.1%, 2024년 1월 기준)

□ 바이에른 주 소재 주요 기업

(단위 : 유로, 2023년)

기업명	분야	매출액	종사자 수
BMW	자동차	1,555억	154,950
Siemens AG	엔지니어링, 전기전자, 의료	778억	320,000
Allianz SE	보험	1,617억	157,883
MAN Truck & Bus SE	상용차	148억	33,000
Munich Re Group	재보험	579억	42,812
Linde plc	에너지, 엔지니어링	297억	65,010
Ams-Osram	반도체, 조명	36억	20,070
Infineon Technologies AG	반도체	163억	58,590
ProSiebenSat.1 Media	방송사	39억	7,188
Wacker Chemie AG	화학	64억	16,378

□ 바이에른주 주요 전시회

전시회명	개최월 (주기)	개최 도시	규모			
			면적 (m ²)	참관객	참가업체(개사)	
					외국	독일
광학&디자인전 Opti	1월 (매년)	뮌헨	40,000	21,504	154	204
동계스포츠용품전 ispo	1월 (매년)	뮌헨	122,500	35,165	2,246	169
국제장난감전 Spielwarenmesse	2월 (매년)	뉘른베르크	165,000	56,932	1,914	440
국제건축.건설.광산기계전 bauma	4월 (3년)	뮌헨	614,000	495,132	2,095	1,132
레이저 전문전 Laser World of Photonics	6월 (격년)	뮌헨	63,000	42,034	788	432
환경전시회 IFAT	5월 (격년)	뮌헨	300,000	120,000	1,705	1,395
태양에너지전 Intersolar	6월 (매년)	뮌헨	112,400	94,299	968	407
전자 기계 공학전 AUTOMATICA	6월 (격년)	뮌헨	66,000	41,169	225	423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전 Outdoor by ISPO	6월 (매년)	뮌헨	35,000	8,389	558	108
제어.센서시스템 전문전 SPS IPC Drives	11월 (매년)	뉘른베르크	128,000	50,081	465	764
전자 부품.시스템전 electronica	11월 (격년)	뮌헨	150,000	69,783	1,335	805
제품 생산 기술전 productronica	11월 (격년)	뮌헨	91,500	42,275	768	633

* 자료원: 독일전시산업협회(www.auma.de/en)

** 상기 전시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 또는 개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 및 참관 전에 반드시 주최 측에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VI. 독일 방문 및 체류 시 참고사항

1. 방문 관련 기본정보

□ 입국절차

- 한국과 독일 간 비자 협정에 의해 3개월 이하 체류 시 비자가 불필요하며,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 無
- 입국 심사대는 EU 시민용 창구와 외국인 창구가 나뉘어 있으며, 입국 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 시 이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됨
- 세관신고서 양식은 없으나 일정 기준의 세관 규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 의무
 - * 비EU 개인 여행자의 항공 및 선박 여행 시 최대 430유로(만 15세 미만 여행자의 경우 최대 175유로)에 해당하는 물품
 - 수하물을 찾은 후 통과 시 일부 여행객의 수하물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함

□ 호텔 예약

- www.booking.com 에서 호텔 검색 및 예약
- 목적지 검색창에 뮌헨(Munich)을 입력
- 한글 서비스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Hotel Vier Jahreszeiten Kempinski München	Maximilianstraße 17, 80539 München	Tel : 089 2125 0
Hotel Novotel München Messe	Willy-Brandt-Platz 1, 81829 München	Tel : 089 9940 00
Hotel Motel One München-Messe	Willy-Brandt-Platz 8, 81829 München	Tel : 089 4132 9920
Hotel Mercure München Altstadt	Hotterstraße 4, 80331 München	Tel : 089 2325 90
Leonardo Hotel München City Center	Senefelderstraße 4, 80336 München	Tel : 089 5515 40

□ 생활정보

○ 기후

- www.wetter.de 에서 뮌헨(Munich) 검색 및 날씨 확인 가능
- 독일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
-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며, '23년 연평균 기온은 10.°6 기록
- 한국과 유사하게 사계절이 있으나, 한국보다 기온이 대체로 낮으므로 출장 시 좀 더 따뜻한 복장 준비 필요, 봄, 가을, 겨울에 비가 자주 오는 편이며,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므로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대중교통 : 지하철(U-Bahn), 국철(S-Bahn), 트램(Tram) 및 버스(Bus)

- 뮌헨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마다 운행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정시 출발 도착. 교통티켓 1장으로 지하철 (U-Bahn), 국철(SBahn), 전철(Tram) 및 버스 모두 환승, 이용 가능
- 이동 구간과 이용 시간을 기초로 다양한 교통운임체계 운영
- 대중교통의 구간은 크게 시내중심(Innenraum : Zone 1-4), 외곽 (Aussenraum : Zone 5-16), 전 구간(Gesamtnetz : Zone 1-16)으로 나뉘어져 있음
- 구입한 티켓은 승차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철 플랫폼과 버스/전철 내부 개찰기에 소인을 찍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검사원의 불시검문 시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6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함.

※ 티켓 종류 & 요금 안내

- 편도 티켓 (Einzelfahrkarte) : 한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 왕복 금지
 - * 어른 기준(시내) 3.90유로
- 1일 티켓(Tageskarte) : 당일 하루 종일 ~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유효
 - * 어른 기준(시내) 9.20유로
- 자세한 티켓 관련 정보 및 이동 구간 검색 가능 사이트

☞ <https://www.mvv-muenchen.de/en/index.html>

○ 시티 투어 카드 (City Tour Card)

- 뮌헨 시내와 인근 외곽지역의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유적지나 박물관등에서 최고 50%까지 할인. 파트너 티켓은 최대 5명 까지 사용 가능. 자세한 요금 정보 및 구매 안내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https://www.mvg.de/tickets-tarife/muenchen-besucher/citytourcard.html>

○ 택시

- 택시기사에게 행선지 거리명과 번지수만 알려주면 목적지까지 안내
- 택시는 보통 택시 승강장에서 타거나 전화로 호출해야 하지만 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도 이용 가능. 기본요금 : 5.70 유로, 1km당 2.50유로
- 택시호출번호 : +49(0)89-21-610

○ 전화

- 일반 대중 전화기를 이용해도 좋으나, 유심칩과 선불(Pre-paid)카드를 구매해 한국 휴대폰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 이 경우 인터넷 데이터도 활용 가능
- 선불카드는 인터넷이나 Deutsche Telekom 계열의 T-Mobile을 비롯하여 Vodafone, e-Plus, O2 등의 지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dm(드럭스토어)이나 Aldi(슈퍼), Lidl(슈퍼)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 (단, 경우에 따라 현지 주소를 요청하므로 유의)
- 출장 또는 여행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전 구매해 유럽 내 바로 개통이 가능한 유럽 유심을 미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 환전

- 공항이나 주요 은행지점에서 가능하며, 은행별로 수수료에 차이가 있음
- 코메르츠 은행(Commerzbank),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Sparkasse(저축은행) 등을 활용 가능

○ 전압

- 독일의 전기 규격은 50Hz, 230V로 대부분의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모터가 들어간 일부 제품(세탁기, 냉장고, 헤어드라이어 등)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음
- TV와 비디오 레코더는 우리나라의 NTSC 방식과는 달리 PAL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 불가

○ 시차

- 독일에서는 서머타임(Summer-time)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과 10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시간이 조정됨
-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는 서머타임으로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에는 8시간 차이

○ 여권 분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도난 증명서를 받아야 함
-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이는 한 달간 유효

- 뮌헨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이 소재하지 않으므로 베를린대사관 혹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문의하여야 함
- 뮌헨 류승석 영사협력관 연락처 : +49 (0)179 3298 013
- ※ 필요 서류 : 진술서, 경찰서발부 분실 증명서, 사진 2매, 분실 여권번호와 발행일

○ 항공권 분실

- 대부분 항공사에서 항공권 재발급이 가능 (항공권 복사본이 있으면 쉽게 재발급 처리)
- 분실 즉시 여권을 지참, 현지 해당 항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분실 사유서 작성
- 시간이 없을 경우 새 티켓을 구입하고, 분실 티켓은 추후에 항공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불 가능
- 재발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발급 소요시간은 항공사별 상이

□ 문화적 유의사항

○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계획성, 합리성 추구

- 독일 기업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 미국과 달리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대부분 정장을 입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몇 주 전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등 보수적인 면이 강한 편
- 계획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 총동구매 가능성이 적으며 사실(fact) 위주의 의사결정

○ 목적을 사교보다 더 중요시

- 독일인들은 스몰토크(small talk)가 적은 편이며,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목적 달성 추구
- 미팅 전 상대방의 상품 및 기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
-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상품을 홍보하기 보다는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지나친 접대는 지양

- 독일 기업의 윤리경영은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방문 시에 지나친 접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나친 접대는 지양 요망

2. 식당정보

□ 한식당

식당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영업시간
서울	Leopoldstraße 120, 80802 München Tel : 089-348 104	화-일 : 12:00-14:30, 18:00-23:00 (월요일 휴무)
아리수	Triftstraße 1, 80538 München Tel : 089 2424 3594	월-금 : 11:00-15:00, 18:00-22:00
김가네	Theresienstraße 138 Tel : 089 3796 6880	화-일 : 11:30-14:30, 18:00-23:00 (월요일 휴무)
한식	Thomas-Wimmer-Ring 9, 80539 München Tel : 0179 1423 207	월-금 : 06:30-15:00, 토요일 11:00-20:00 (일요일 휴무)
유유미	Fraunhoferstraße 11, 80469 München Tel : 089 2420 7624	일-목 : 12:00-22:00, 금~토요일 12:00-22:30
89 안주	Luisenstraße 47, 80333 München Tel : 089 9090 1189	월,수-금 : 11:30-14:30, 17:30-23:00 토-일 : 17:30-23:00 (화요일 휴무)
한쌈	Schleißheimerstraße 456, 80935 München Tel: 089 4133 6705	월,수,목: 17:30-22:30 금,토,일: 12:00-15:00, 17:30-22:30 (화요일 휴무)

□ 독일식당

식당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영업시간
라츠켈러	Marienplatz 8, Muenchen Tel : 089 219 9890	일-월 : 11:00-23:00
호프브로이 하우스	Platzl 9, 80331 München Tel : 089 290 136 100	일-월 : 11:00-00:00
쭘 프란치스카너	Residenzstraße 9, 80333 München Tel : 089 231 8120	일-월 : 10:00-00:00 (월요일 휴무)

* 성수기에는 독일 식당이 예약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약 필수이며 영업시간 또한 현지 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터넷으로 확인 요망

3. 관광 정보

□ 뮌헨 시내

○ 바이에른 왕국 궁전 (Residenz, 레지덴츠)



1385년에 뮌헨 외곽에 Neuveste라는 성(城)을 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수 세기에 걸쳐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 1508년부터 1918년까지 바이에른 공작, 선제후, 왕들의 집무실 및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함.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된 100여개의 방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이에른 왕실의 왕관이 전시되어 있는 보물의 방(Schatzkammer)인데, 이 밖에도 비텔스바흐(Wittelsbach) 가문의 초상화 등 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 * 입장료 : 레지덴츠 박물관: 10유로, 보물의 방 : 10유로
- * 개관 시간 : 09시~18시 (하절기/4월~10월15일),
10시~16시 (동절기/10월 16일~3월)
- * 위치 : S-Bahn/U-Bahn의 Marienplatz역에서 하차, 신 시청사 옆 Residenzstrasse를 따라 도보로 8분소요
- * 홈페이지 : www.residenz-muenchen.de

○ 뮌헨 新시청 (Neues Rathaus, New Townhall)



뮌헨 마리엔 광장(Marienplatz)에 위치하며 신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음. 매일 오전 11시, 낮 12시, 오후 5시에 시간을 알리는 글로켄슈필(사람 크기의 인형)이 유명함. 1867~1908년 신시청사 개축 시 43개의 종과 32개의 실물사이즈 인형으로 만들어졌음. 처음에는 1568년에 있었던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5세(Hofbräuhaus 건립자)와 레나타의 결혼식이 재현되고 이어서 무용수들이 나와 즐겁게 춤을 추는데 이는 1515년부터 1517년까지 유행했던 페스트가 사라짐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의식임

- * 위치 : Marienplatz 8, 80331 Munich

○ 뮌헨 성모 교회 (Frauenkirche)



마리엔 광장에서 약간 서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프라우엔(성모) 교회. 규모가 너무 커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만 교회 전체가 다 보일 정도임. 높이 109m, 폭 40m에 이르는 거대한 성모 교회 꼭대기에는 2개의 둥근 모양의 탑이 있음. 프라우엔 교회 내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막시밀리안 황태자 묘와 악마의 발자취*.

* 악마의 발자취란 ?

교회 건축 당시, 건축가와 악마의 거래에 대한 전설로 이름이 생기게 되었음. 악마가 성모 교회 건설에 일조하는 조건으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볼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건축가가 약속을 했으며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건축가가 악마를 안내한 자리에만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만들었다고 함. 나머지 자리는 밝은 빛이 들어오며, 그 악마가 창문이 보이지 않는 한 자리로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남았다는 설이 전해져오면서 '악마의 발자취'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고 함.

○ 고대, 근대, 현대미술관 (알테, 노이에, 모데르네 피나코텍)



알테 & 노이에 피나코텍, 피나코텍 모던 (Alte & Neue Pinakothek, Pinakothek der Moderne) 은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알테피나코텍에는 중세~로코코 시대까지의 작품을 전시. 노이에 피나코텍에는 18세기 후반~20세기까지의 예술작품 전시. 제일 최근에 생긴 피나코텍 모던은 알테 피나코텍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특히 노이에 피나코텍은 루벤스의 작품, 알테 피나코텍은 알브레히트 뒤러의 자화상으로 유명.

- * 주소 : Barer Strasse 27, 29, 40(알테 피나코텍, 노이에 피나코텍, 피나코텍 모던)
- * 대중교통
 - U-Bahn 역 : Theresienstrasse (U1, U2, U8)
- * 노이에 피나코텍은 보수공사로 인해 2025년까지 **휴관**

○ BMW 박물관 (BMW Museum)

- * 1978년 개관
- * 연면적 5,000㎡에 BMW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120여 전시품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등) 전시
- * 위치 : BMW 본사 바로 옆
- * 주소 : Am Olympiapark 2, 80809 München
- * 개관시간 : 10시~18시 (월요일 휴관)

○ 호프브로이하우스 (Hofbräuhaus)



1589년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5세(1579-1597)가 가이젠펠트 수도원(Geisenfeld Monastery)의 수석 양조장인 Heimeran Pongraz를 스카웃 Hofbräuhaus 양조장 설계, 개발토록 함. 인근Alter Hof에서 1592년 맥주 생산 시작. 1607년 현재의 장소로 양조장 옮김. 1828년부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됨. 이때부터 매우 유명해져 명성을 얻게 되었고, 2004년부

터는 뮌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나라에도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생겨났음. 이곳에서 매일 바이에른 전통 음악이 연주됨

- * 위치 : Am Platzl 9, Muenchen,
- * Tel : +49-(0)89-290-1360
- * 홈페이지 : <http://www.hofbraeuhaus.de>

VII. 현지 주요 연락처

□ KOTRA 뮌헨무역관

- 주소 : Bürkleinstraße 10, 80538 Munich
- 전화 : +49-(0)89-2424-2630
- 웹사이트 : www.kotra.or.kr/KBC/munich

□ 한국 대사관(영사관)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Stuelerstr. 10, 10787 Berlin
- 전화: +49-(0)30-26065-0
- 긴급연락처: +49-(0)173-407-6943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49-(0)30-2606551
- 메일 koremb-ge@mofa.go.kr

○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본 분관

- 주소: Godesberger Allee 142~148. 3OG., 53175 Bonn
- 전화: +49-(0)228-94379-0
- 긴급연락처: +49-(0)170-337-9105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49-(0)228-3727894
- 메일: admin-bn@mofa.go.kr

○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주소: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M.
- 전화: +49-(0)69-956752-0
- 긴급연락처: +49-(0)173-363-4854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069-569814
- 메일: gk-frankfurt@mofa.go.kr

□ 긴급 연락처

구분	전화
경찰	110
소방서/응급환자	112
환자수송 앰블런스	+49-(0)89-19222
당직근무병원	+49-(0)89 3304 0302


□ 뮌헨 공항 (뮌헨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8km)

- 주소 : Nordallee 25, 85356 München-Flughafen
- 전화 : +49-(0)89 975 00 (일반 정보), +49-(0)975 213 13 (이착륙 시간 안내)
- 홈페이지 : www.munich-airport.de

□ 공항에서 뮌헨 무역관 오시는 방법

○ S-Bahn 및 지하철 (U-Bahn) 이용 시

- 뮌헨공항 역에서 전철(S 1번 혹은 S 8번)을 타고 Isartor역에서 하차하셔서 Thierschstrasse 방향의 출구로 나오십시오.
-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좌측의 길을 따라 Thomas-Wimmer-Ring 도로를 따라 350m 정도를 걸어오시면 Maximilianstrasse 사거리가 나옵니다.
- 사거리에서 걸어오신 방향으로 신호등을 건너서 Karl-Scharnagl-Ring 도로를 따라 150m 정도 직진하신 후 우측의 OBJECT CARPET 쇼룸이 위치한 빌딩 5층에 뮌헨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Muenchen)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전철(S-Bahn)표는  표시가 있는 안내 센터 또는 발권 기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은 짧은 구간용 편도티켓(독일어 : Einzelfahrt / 영어 : Single Ticket)을 자판기에서 구입 후, 개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데이 티켓(독일어 : Tageskarte / 영어 : Day Ticket)을 구입 하시면, 개찰 후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해당구간 안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시에는 정기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공항버스 이용 시

- 공항 터미널 1 또는 2에 있는 공항버스 승강장에서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공항버스 (Lufthansa express bus)를 타고 중앙역(Munich Central Station영어 / Munchen Hauptbahnhof독일어) 까지 오신 후 전철(S-Bahn) 또는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금: 성인기준 공항에서 중앙역까지 편도 12,00유로)

○ 택시 이용시

- 공항, 중앙역(Hauptbahnhof) 등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탑승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Call Taxi 전화번호: 21610) 택시 탑승 후 해외무역관 주소를 택시운전사에게 제시하면 바로 해외무역관 앞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요금 : 공항-뮌헨 전시장 90 유로, 공항-중앙역 101 유로, 중앙역-전시장 41유로)

○ 자가용 이용시

- 무역관 인근 호프브로이하우스 주차장(Parkhaus Hofbauhaus. 주소 : Thomas-Wimmer-Ring 9a, 80539 München) 주차 후 도보 5분

<약도 : Isartor에서 무역관 찾아오시는 길>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